

# 어린이집 강사 성범죄 미조회 '절차 부적절' 지적

##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시정 24건·처리28건 등 201건  
총장 축제 '마스 플래타' 질타  
위탁 감사 결과 등 제출 안해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도 미흡

광주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강사 성범죄 미조회,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 미흡, '위탁 감사 결과 미제출', '총장축제' 등이 지적됐다.

광주 동구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6일까지 규정 및 실·관·국 등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등 총 201건(시정 24건·처리28건·건의92건·문의57건)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행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범죄 전력 미조회'와 '홈페이지 전반적 관리 미흡', '위탁 감사 결과 미제출', '총장 축제' 등이 지적됐다.

범죄 전력 미조회는 동구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 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지적됐다. 노진성 의원은 여성 아동과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구 영재 캠프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 채용 과정에서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강사 채용 후 성범죄 등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와 취업자, 취업예정자는 모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8개의 지적 사항이 잇따랐다. 의회는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홈페이지공개와 법무감사관에 징계운영 현황 공개자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자료 홈페이지 게재 등을 요청했다.

미로운영센터 홈페이지는 2차 추경 때 220만원을 편성해 구축했으나 관리가 미흡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관련 회의와 사업추진 내용 등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집행부의 결과보고서 제출 등도 지적 사항이다.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는 문화관광과 등 집행부 전반이 의회에 감사결과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회 총장축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

한 킬러콘텐츠 '마스플레타'를 '소음 피해'라고 지적했다. 마스플레타는 매년 3월 스페인 발렌시아의 '라스 파야스' 축제에서 수천 발의 폭죽을 쏘아 올리며 스페인 내전의 희생자를 기리는 전통 의식이다.

의회는 "주변에서 마스플레타에 대한 비평이 많았다"며 "폭죽소리에 깜짝 놀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일반 대중이 즐기기에 부족하고 난해한 측면이 있

다"고 당부했다.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의회는 "동 퍼레이드 진행 시 핫플, 파라핀 오일 등 위험요소가 있었는데 돌발 상황 대비 직원 미배치 등 축제 안전과 관련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각 부서별로 문화경제국 52건·복지환경국 35건·도시관리국 45건·자치행정국 26건·보건소 13건·의회사무과 3건·기획

예산실 8건·홍보실 6건·주민안전담당관 4건·법무감사관 9건 등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광주 동구의회 관계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철회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섬세히 살펴보고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선별진료소 31일 종료 18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지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1441일 만이다. 김양배 기자

## '1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조폭 등 34명 기소

### 광주지검, 시계·금 200돈 압수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과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00억원대 자금세탁을 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의 혐의로 '국제PJ파' 조직원 A(27)씨 등 34명(구속 5명·불구속 29명)을 기소하

고, 범죄 수익금 7억원을 압수했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5명은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표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표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구속기소된 B(23)씨 등 29명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A씨 등에 게 1개 계좌당 월 100만~1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총 86개를 넘겨주거

나 사용했다.

A씨 등은 도박자금을 대여한 대표통장에 입금받고, 이를 2~3차례에 걸쳐 다른 대표통장에 분산이체, 출금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 'MZ 조폭'들로 확인됐다. MZ조폭은 4세대형으로 분류되는데, '조폭'과 같은 1세대형, 부동산 시장에 진출한 2세대형, 주가 조작 등 금융시장 진출 영역인 3세대형으로 발전했다. 4세대형은 2010년대 이

후 등장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조직 등을 일삼는 이익 추구 범죄집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대표통장을 이용한 현직 의사 C씨도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 C씨는 코로나19로 환자가 늘고 수익이 많아지자 탈세를 위해 대표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자금세탁 조직원 3명에게 돈을 주고 계좌를 빌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은 특정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된 정황을 포착, 이 계좌와 연결된 약 470개의 계

좌를 추적해 자금세탁 범행을 밝혀냈다.

체포 과정에서 현금 3억4500만원, 금송아지 등 200여돈의 금붙이, 1억2000만원 상당의 명품 등 7억원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검찰은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진 4명은 지명수배하고, 도박사이트 총책을 특정하는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일당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범죄는 절대 돈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